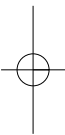


냉담 교우 회두 안내서



천주교 안동교구 사목국



‘아버지 품을 떠난 작은 아들 찾기 운동’을 시작하면서...

‘냉담 교우’란 통상적으로 3년 연속 판공성사를 보지 않은 신자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용어상의 의미를 고려한다면 신앙의 열정이 식어버린 상태 즉 공허한 신앙생활을 하는 영적 냉담 신자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냉담 교우에 관한 통계는 정량적인 수치로는 한계가 있고 정성적인 내용까지 포함해야 하기에 정확한 통계를 산출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판공성사를 기준으로 하는 냉담 교우 현황을 기초 데이터로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교세통계를 작성하면서 냉담 교우 통계를 산출할 때, 판공성사를 3년 동안 보지 않은 이들을 주소확인 신자와 거주미상 신자로 나누어 냉담 교우로 분류합니다. 여기에서 주일미사 참여자 수를 비교하여 전체적이고 개괄적인 냉담 교우 현황을 판단하게 됩니다.

안동교구의 전체 신자 수 대비 냉담 교우(판공성사 기준)의 비율을 보면 2014년 현재 41%(신자 총수 49,487명, 냉담신자 수 20,395명)에 달합니다. 교구 통계를 작성한 이래 냉담 교우의 비율이 가장 높았던 해는 2008년인데, 이때는 51.3%(신자 총수 46,364명, 냉담 신자 23,802명)까지 육박하기도 하였습니다. 교적상의 신자들 2명 중 1명이

냉담 교우라는 뜻입니다. 지방 교구의 특성상 자녀들이 대도시로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가 빈번하기에 냉담 교우의 비율이 당연히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상황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냉담 교우의 현황은 그렇다 치더라도, 주일미사 참여자 수를 들여다 보면 우리 교구의 현실을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2014년 통계상 주일미사 참여자 수는 20.23%(신자 총수 49,487명, 주일미사 참여수 10,010명)입니다. 1995년도 통계에 주일미사 참여율이 26%(신자 총수 40,846명, 주일미사 참여자 수 10,853명)였음을 감안하면 신자 총수의 증가 만큼 주일미사 참여수가 증가하기는커녕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주일미사 참여수의 감소는 곧바로 냉담 신자의 증가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 수치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주일미사 참여수의 집계가 정확도 면에서 조금은 떨어질지라도, 전체적인 흐름을 반영하는 데에는 분명히 유의미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안동교구는 지난 2년 동안 ‘선교의 해’를 보내면서 사제, 수도자, 평신도들이 모두 한마음으로 선교활동에 노력을 기울여 하향 추세였던 신영세자 및 예비신자 수가 다시 반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 전국교세통계표에 따르면, 당해 영세자수 증감률에서 우리 교구가 한국교회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35.4%)을 기록하였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선교에 대한 사명감과 자신감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증언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냉담 교우 회두 운동’ 역시 교회의 선교활동의 또 다른 중요한 일면

입니다. 그래서 주교님께서는 2016년 사목교서에서 우리 교구의 현실을 감안하여 이렇게 제안하셨습니다.

“저는 하느님을 믿는 모든 가족들을 위해 선포된 자비의 특별희년에 우리 교구가 특별히 함께 해야 할 일에는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세례를 받고 이미 하느님의 자녀가 된 교회의 구성원들이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를 떠나 마치 이산가족처럼 살아가는 형제자매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느님을 믿는 백성 공동체 전체를 하나의 가족으로 생각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가족 구성원들이 집을 떠나 살고 있으니 가정 파탄입니다! ‘되찾은 아들의 비유’(루카 15, 11-32)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집 나간 작은 아들이 언제나 돌아올까 매일매일 집 문간 대청 마루에서 깨어 기다리시는 아버지와 같은 분이십니다. 집 나간 작은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이 보이더라도 하면, 집안에서 그냥 기다리지 못하고 집밖으로 달려 나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며 극진히 맞이하는 아버지 같은 분이십니다.(루카 15, 20 참조) 저는 이 자비의 희년에 우리 교구가 특별히 함께 해야 하는 일로 ‘아버지 품을 떠난 작은 아들 찾기 운동’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교회의 전통적인 표현으로 말하자면 냉담자 회두를 위해 우리 모두 함께 사목적 역량을 모으자는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도 희년을 맞는 교회에 같은 부탁을 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항상 활짝 열려 있는 아버지의 집이 되어야 하고”(『복음의 기쁨』 47항 참조), “말과 행동으로 자비를 전하여 사람들의 마음속에 파고 들어가 그들이 다시 하느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을 찾아 나서도록 하여야 합니다.”(『자비의 얼굴』 12항)(2016년 교구장 사목교서 7항)

당신 품을 떠난 작은 아들이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느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우리들이 직접 그 작은 아들을 찾아 나서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버지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전해줘야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신자들이나 냉담 중에 있는 신자들이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따뜻하게 느낀다면 냉담을 하지도 않을 것이고 냉담을 하고 있더라도 되돌아올 것입니다. 즉 아버지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체험한 냉담자라면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가 없고, 아버지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알고 있는 신앙인이라면 냉담할 리가 없습니다.

2016년도 안동교구에서 전개하는 '아버지 품을 떠난 작은 아들 찾기 운동'에 교구의 모든 사제, 수도자, 신자들이 한 마음으로 동참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난 선교의 해를 계기로 모든 본당에 구성된 본당 선교위원회를 통해 본당의 모든 사목적 역량을 냉담 교우 회두 운동에 모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들이 냉담 교우들을 위해 기도하고 방문하고 대화를 나누며 그들을 다시 아버지 품으로 열심히 인도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품을 떠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2016년 1월 1일

사목국장 황재모 안셀모 신부

Contents

발간사

‘아버지 품을 떠난 작은 아들 찾기 운동’을 시작하면서...

제1부

2016년 안동교구 사목방향 | 08

1. 2016년 ‘자비의 해’ 교구장 사목교서
2. 2016년 안동교구 사목방향 안내
3. 작은 아들을 찾아 나서는 기도
4. 2016년 안동교구 사목활동 지침

제2부

냉담 교우 찾기 어떻게 할 것인가? | 28



냉담 교우 회두 안내서

제3부 냉담 교우 회두사례 - 본당 사례 | 44

1. 준비
2. 단계별 활동시작
3. 1차 활동 종합
4. 2011년 활동
5. '냉담 교우 찾기 운동' 종합

제4부 기타 자료 | 56

1. 사랑의 초대장 쓰기
2. 편지 예문
3. 개인 차원의 대응방안
4. 초대, 환영, 사후관리 매뉴얼
5. 냉담 교우 모시기 5계명

1

2016년 안동교구 사목방향

1. 2016년 ‘자비의 해’ 교구장 사목교서

“하느님 아버지처럼 자비로이”

1. 친애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자주 하느님의 자비를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문화는 자비의 하느님에 대립되는 듯, 자비라는 이념 자체를 생활에서 배제하고 인간 마음에서 제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치 ‘자비’라는 말과 개념을 매우 거북하게 여기는 것 같기도 합니다. 과학과 기술의 엄청난 발달로 땅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인간이 땅에 대한 지배를 너무 일방적이고 피상적으로 알아들음으로써 자기 안에 자비의 여지를 남겨 두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비의 얼굴」 11항 참조) 이러한 분위기와 이유 때문에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지금이 바로 교회가 하느님의 자비를 고백하고 선포하는 본연의 임무를 다해야 하는 절실한 시기라고 강조하시며 ‘자비의 특별 회년’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특별 회년에 우리 모두가 “자비가 풍성하신 하느님”(에페 2,4)의 은총과 구원을 보다 충만히 얻어 누리도록 배려하기 위해서

입니다. 우리 안동교구도 자비의 회년 여정에 맞춰 교회의 모든 사목활동 방향을 집중시킬 것입니다. 특별히 하느님의 자비가 우리 주변 곳곳에서 드러나도록 할 것입니다. 성령의 이끄심 안에서 우리 하느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서로에게 자비를 베풀며 살 것입니다.(루카 6,36 참조) 이것이 이번 성년 표어 “하느님 아버지처럼 자비로이” (Misericordes sicut Pater)에 담긴 의미입니다.

하느님의 자비

2. 하느님의 자비는 나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오히려 전능하신 하느님의 특성입니다. 하느님이 당신 자신을 완전히 낮춰 사람이 되신 육화의 신비, 강생의 신비는 그분께서 오로지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느님의 자비는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실재입니다. 이는 부모가 자기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녕 애끓는 사랑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랑은 온유한 배려와 너그러운 용서가 넘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연스럽게 솟구치는 사랑입니다.”(「자비의 얼굴」 6항) 복음에 나오는 ‘되찾은 아들의 비유’ (루카 15,11-32)가 이런 하느님의 자비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자비의 회년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자비의 얼굴」 칙서에서 자비의 성사인 고해성사의 중요성

을 강조하십니다. 고해성사는 하느님의 자비를 가장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은총의 기회입니다. 여기에는 신자들이 보다 더 많이 보다 더 쉽게 자비의 성사인 고해성사에 접근할 수 있도록 초대하시겠다는 교회 최고 목자의 결연한 의지가 함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교황께서는 고해 사제를 ‘되찾은 아들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에 비유합니다. 고해 사제가 바로 하느님 아버지 자비의 참된 표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고해 사제는 되찾은 아들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와 같이 신자들을 맞이하여야 합니다…… 고해 사제는 집으로 돌아오는 참회하는 아들을 끌어안고 그를 되찾은 기쁨을 드러내야 합니다. 고해 사제는 기뻐하지 못하고 밖에 서 있는 다른 아들에게도 다가가 하느님 아버지의 끝없는 자비 앞에서 그의 완고한 생각은 바르지 못하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끊임없이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고해 사제들은 도움을 청하고 용서를 비는 고해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고해 사제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에서나 그 무엇보다 앞서 자비의 으뜸가는 표지가 되어야 합니다.”(「자비의 얼굴」 17항 참조)

4.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되찾은 아들의 비유’를 우리 삶 안으로 깊이 끌어들여 설명하고자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느님의 자비를 믿고 사는 우리가 보다 더 풍성하게 하느님의 자비를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자비의 회년을 맞이하여 ‘아버지처럼 자비로워지라’고 하

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느님의 자비 안에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느끼며 체험하려 합니다. 하느님 자비의 손길 안에서 그분의 자비를 느끼며 우리도 나날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로워질 수 있다는 믿음을 함께 키워나가려 합니다.

자비의 실천

5.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하느님의 자비를 “복음의 뛰는 심장”(「자비의 얼굴」 12항)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교회가 하느님의 자비를 전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스스로 자비를 살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새로운 열정과 사목활동으로 하느님의 자비를 거듭 알리고 드러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말과 행동으로 자비를 전하여 사람들의 마음속에 파고 들어가 그들이 다시 하느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을 찾아 나서도록 해야 합니다.”(「자비의 얼굴」 12항)

6. 「자비의 얼굴」 칙서를 통해 교황께서는 자비의 성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해야 할 자비의 구체적 실천 활동으로, 교회의 전통적인 가르침에 따라 자비의 육체적 활동과 자비의 영적 활동으로 구분하여 전하고 있습니다.(「자비의 얼굴」 15항 참조)

자비의 육체적 활동에는 배고픈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

마른 이들에게 마실 것을 주고, 헐벗은 이들에게 입을 것을 주고, 나그네들을 따뜻이 맞아주며, 병든 이들을 돌보아 주고, 감옥에 있는 이들을 찾아가 주며, 죽은 이들을 묻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자비의 영적 활동에는 의심하는 이들에게 조언하고, 모르는 이들에게 가르쳐 주며, 죄인들을 꾸짖고, 상처받은 이들을 위로하며, 우리를 모욕한 자들을 용서해 주고,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을 인내로 이 건디며, 산 이와 죽은 이들을 위하여 하느님께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곧 자비의 육체적 활동 일곱 가지, 자비의 영적 활동 일곱 가지입니다. 교회 전통에서 ‘일곱’이라는 숫자는 ‘완전’이나 ‘전체’를 의미합니다. 즉 자비의 육체적 활동과 영적 활동이 각각 일곱 가지인 것은 여기에 시대적,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차원을 뛰어넘는 자비의 모든 활동이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자비의 구체적 활동의 핵심은 성서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시대의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마태 25,40.45)이 누구인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품을 떠난 작은 아들 찾기

7. 우리 안동교구는 지난 2년 동안 교구의 사목방향을 ‘선교’에 집중하면서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과 신앙의 기쁨을 나누는 행복을 함께 체험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리저리 다니느라 어렵고 힘든 적도 있었지만 신앙의 기쁨은 나눌수록 커진다는 값진 체험을 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새로 입교한

형제자매들과 신앙 안에서 맺은 교우적인 관계는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참으로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하느님을 믿는 모든 가족들을 위해 선포된 자비의 특별 회년에 우리 교구가 특별히 함께 해야 할 일에는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세례를 받고 이미 하느님의 자녀가 된 교회의 구성원들이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를 떠나 마치 이산가족처럼 살아가는 형제자매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느님을 믿는 백성 공동체 전체를 하나의 가족으로 생각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가족 구성원들이 집을 떠나 살고 있으니 가정 파탄입니다! ‘되찾은 아들의 비유’(루카 15,11-32)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집 나간 작은 아들이 언제나 돌아올까 매일매일 집 문간 대청마루에서 깨어 기다리시는 아버지와 같은 분이십니다. 집 나간 작은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이 보이길라도 하면, 집안에서 그냥 기다리지 못하고 집밖으로 달려 나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며 극진히 맞이하는 아버지 같은 분이십니다.(루카 15,20 참조) 저는 이 자비의 회년에 우리 교구가 특별히 함께 해야 하는 일로 ‘아버지 품을 떠난 작은 아들 찾기 운동’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교회의 전통적인 표현으로 말하자면 냉담자 회두를 위해 우리 모두 함께 사목적 역량을 모으자는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도 회년을 맞는 교회에 같은 부탁을 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항상 활짝 열려 있는 아버지의 집이 되어야 하고”(「복음의 기쁨」 47항 참조), “말과 행동으로 자비를 전하여 사람들의 마음속에 파고 들어가 그들이 다시 하느님 아버지께로 돌아

가는 길을 찾아 나서도록 하여야 합니다.”(「자비의 얼굴」 12항)

8. 아버지 품을 떠난 작은 아들을 찾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함께 기울일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이유에서든 아버지의 품을 떠난 우리 형제자매들이 다시 하느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품을 떠난 그들이 다시 하느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느님의 자비를 배우고 익히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자비가 그들 마음속을 파고들도록 해서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하는 내적인 충동을 일으키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제야 제정신이 든”(루카 15,17) 작은 아들처럼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루카 6,36)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마태 5,7) 하느님의 자비를 전하기 위해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느님 자비의 축복을 풍성하게 얻어 누리기 위해 하느님의 자비 안에서 그 자비를 스스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난 작은 아들 찾기 운동이 성공하려면, 작은 아들에게 자비를 전하는 그 사람이 먼저 자비를 베풀 줄 아는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이치를 함께 마음에 새겨 봅시다.

9. 자비로운 사람들이 누리는 행복에 초대된 형제자매 여러

분! 여러분들은 이미 하느님의 자비를 입었습니다. 하느님의 자비로 구원된 사람들입니다. 하느님의 자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에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 아버지의 자비의 얼굴이십니다.”(「자비의 얼굴」 10항) 예수님을 뵈는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뵈는 것입니다.(요한 14,9 참조) 이처럼 예수님께서서는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의 계시자이십니다.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자비로운 사람이 된 원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살면 우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비로운 사람이 되면 예수님께서서 약속하신 대로 하느님의 자비를 입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의 자비를 입게 되면 그 자비로 ‘아버지 품을 떠난 작은 아들’을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품을 떠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2015년 11월 29일 대림 제1주일

천주교 안동교구장 권혁주 요한 크리소스토모 주교

2. 2016년 안동교구 사목방향 안내

1) 2016년 보편교회 - ‘자비의 해’ 특별 회년 거행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2015년 4월 11일에 발표하신 「자비의 얼굴」(Misericordie Vultus) 칙서를 통해 ‘자비의 해’ 특별 회년을 선포하셨다. 이 성년은 2015년 12월 8일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에 시작되어 2016년 11월 20일 그리스도와 대축일에 끝나게 된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직무에서 자비가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은 그분의 사도적 권고 「복음의 기쁨」에서 하신 말씀에서 분명히 알 수 있다. 교회는 “하느님 아버지의 자비와 그 무한한 힘을 경험하였기에 자비를 베풀려는 끝없는 열망을 지니고 있습니다.”(24항)

그리고 「자비의 얼굴」 칙서에서 성년 발표의 취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교회는 용서와 헌신으로 이끄는 이러한 사랑의 봉사자요 전달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있는 곳 어디에서나 하느님 아버지의 자비가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 본당과 공동체, 단체와 운동 곧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에서는 누구든지 자비의 안식처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12항) 그래서 교황께서는 “우리 자신이 자비를 베푸시는 아버지의 뚜렷한 표지가 되도록”(「자비의 얼굴」 3항)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원하신다.

이 칙서에서 교황께서는 자비하신 하느님의 본성을 잘 드러내고 있는 세 가지 비유 곧 되찾은 양, 되찾은 은전 그리고 되찾

은 아들의 비유를 강조하신다.(루카 15,1-32 참조) 이 비유를 통해 우리가 ‘복음과 우리 신앙의 핵심’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자비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것일 뿐만 아니라 참된 하느님 자녀의 식별 기준이 되는 것이라고 단언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상기하신다.(「자비의 얼굴」 9항 참조)

우리 교구가 자비의 특별 회년을 충실히 보내면서, 세상에 아버지 하느님의 자비의 표지로, 자비의 안식처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면 좋겠다.

“자비는 교회 생활의 토대입니다. 교회의 모든 사목활동은 온유함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온유함을 신자들에게 보여 주어야 합니다. 복음 선포이든 세상에 대한 증언이든 그 어떠한 것도 자비가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 대한 신뢰도는 자비와 연민이 가득 찬 사랑에 달려 있습니다.”(「자비의 얼굴」 10항)

2) 2016년 안동교구 - ‘아버지 품을 떠난 작은 아들 찾기’

안동교구는 지난 2013년 11월 사제회의를 통해, 교구 설정 50주년을 준비하는 우선적인 과제를 ‘지역의 복음화’에 두고 2014년~2015년은 ‘새로운 양 찾기’ 운동을, 2016년은 ‘잃은 양 찾기’ 운동을 진행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이 일정에 따라 우리 교구는 2014년부터 2년 동안 ‘선교의 해’를 보내면서 ‘새로운 양 찾기’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 기간 동안 사제, 수도자, 평신도들이 모두 한마음으로 선교활동에 노력을 기울여 하향 추세였던 신영세자 및 예비신자 수가 다시 반등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 교구가 처한 현실은, 새로운 신자를 찾는 일도 중요하지만 냉담 교우들을 다시 교회로 회두시키는 일이 더욱더 필요한 현안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교적상의 신자 중에서 냉담 교우가 41.2%(주소확인, 거주미상 합계)에 달하고 있으며, 주일미사 참여율도 20%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2014년 통계자료 참조) 그러므로 냉담 교우의 현황(원인, 유형, 대처방안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들이 다시 교회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난 ‘선교의 해’의 매뉴얼에 따라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또한 어렵게 영세를 받더라도 쉽게 냉담을 하게 되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보다 근본적인 내부진단도 함께 있어야 할 것이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선포하신 ‘자비의 특별 회년’은 이러한 우리 교구의 사목방향에 좀 더 분명한 메시지를 주는 것 같다. 교황께서 「자비의 얼굴」 칙서를 통해, 아버지 하느님에게서 등을 돌린 이들이 다시 한 번 아버지께 돌아오는 길을 찾아 나서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는 말과 행동으로 그 자비를 전하여 사람들의 마음속에 파고들어가 그들이 다시 하느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을 찾아 나서도록 하여야 합니다.”(「자비의 얼굴」 12항)

특별히 교황께서 강조하신 세 가지 비유(루카 15장) 중에서 ‘되찾은 아들의 비유’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를 저버리고 등을 돌린 냉담 교우들이 어찌면 이 비유에 등장하는 작은 아들이 아니겠는가? 어찌면 아버지 하느님

의 자비가 가장 필요한 이들이 바로 냉담 교우들일 수 있지 않은가? 감히 아버지께 돌아오기를 두려워하는 이들과 아버지의 자비를 거부하는 이들에게 다시 한 번 자비의 아버지를 전해 주어야 하겠다. 자비의 아버지는 그들이 돌아오기를 오늘도 학수고대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 교구는 자비의 특별 회년을 충실히 보내면서, 교회 안팎에 아버지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드러내는 증언의 삶을 살아 아버지 품을 떠난 수많은 냉담 교우들이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되었으면 하겠다.

그리하여 이 “은총의 시기에 하느님의 많은 자녀들이 하느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여정을 시작”(『자비의 얼굴』 18항)하였으면 좋겠다.

3) 냉담 교우 인도에 관한 사목적 제안¹⁾

① 냉담 교우란?

- 3년 연속 관공성사를 보지 않은 신자
- 무관심, 열정을 잃어버린 신자
- 공허한 신앙생활을 하는 영적 냉담 신자

② 현황 분석

본당 사목구의 냉담자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현황을 분석하여 주소 확인 냉담 교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류(일시적 냉담자, 진정한 냉담자, 냉담 원인 등)하여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아울러 거주지 미상 신자들에 대한 정리도 필요할 것이다.

■ 냉담 유형

- 생업 / 학업에 바빠서(자녀 학업문제 등)
- 교회에서 받은 실망과 상처(사제, 수도자 및 동료 신자와의 갈등 등)
- 신앙생활에 대한 회의
- 여가 및 취미생활에 지장
- 가족 내 종교 갈등

1)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복음화위원회가 “새로운 복음화와 냉담 교우 회두”라는 주제로 개최한 특별 세미나 발표 자료 참고. (2011년 10월 7일, 명동대성당 포스트홀)

- 고해성사에 대한 부담
- 교무금 / 건축헌금에 대한 부담 등

■ 냉담 원인

- 냉담 신자 측면
 - 무기력한 신앙생활 / 구원에 대한 확신 부족
 - 종교적 속박에서 벗어나려는 경향 / 익명화
 - 교회에서 영적 위로나 도움을 받기 어려움
 - 형식적인 고해성사에 대한 회의
 - 빈곤층의 소외감
- 교회 공동체 측면
 - 상처 / 위로를 찾는 이들을 수용하지 못하는 교회
 - 영적 성숙을 이끌 건인력 부족
 - 중산층화 / 끼리끼리의 문화 / 신자 갈등
 - 성직자의 권위주의
 - 취약한 신자 재교육 구조

참고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재 열심히 신자들 중에서 과거에 냉담을 경험한 신자가 약 40%에 이른다. 이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지금도 냉담을 풀고 돌아오는 신자가 있는가 하면 새롭게 냉담 신자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비율이 상호 간에 비슷하다는 것이다.

냉담 교우로 있었던 기간을 살펴보면 1년 이내가 35.3%이고, 1~5년 이내가 42.2%, 6~10년 이내가 13.3%이다. 이 기간이 지

난 다음의 냉담 교우는 90.8%가 다시 돌아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는 10년 내에 냉담을 풀고 90.8% 신자가 돌아온다는 긍정적인 면도 보여주지만 9.2%의 신자는 진정한 ‘냉담 교우’가 되어 간다는 현실을 보게 해 준다.(우리 교구의 현실과 상이한 점도 있겠다.) 냉담 교우의 연령을 보면 20~40대에서 거의 40%에 육박할 정도로 ‘냉담 교우’의 경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③ 구체적인 제안들

- 본당의 모든 사목방향을 냉담자 인도에 집중
- 가족 냉담자를 위한 노력 : 가족 안에 냉담자가 많다. 가정 성화가 중요, 자녀 신앙생활 강조, 결혼 때 신앙생활 강조
- 청소년, 청년 냉담 교우들을 위한 노력 :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에 빠져 있는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아낌없는 관심과 사랑을 보여야 한다.
- 신자 재교육 : 기도를 거의 하지 않는 신자가 20대에는 86%, 30대에는 81.9%, 40대에는 59%이다. 게다가 열심히 기도하는 신자 중에서도 기도의 내용에 기복적인 지향이 많다. 이런 경우 인간적 갈등이나 위기에 직면하면 쉽게 냉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신자들이 기복 신앙에서 개인 성화로 옮겨갈 수 있는 사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개인 성화는 우리를 성덕으로 이끄는 하느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한다. 그래서 본당에서 이를 구체화하는 성경모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 대부모 역할 강화
- 본당을 사랑과 친교의 공동체로 만들기 : 냉담의 원인을 분석하여 냉담의 재발을 막는 공동체 만들기
- 구역(반)모임의 활성화(‘익명의 신앙인’을 최소화)
- 가난한 이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교회의 노력 : 지난 30년 동안 한국 천주교회에 들어 온 새로운 신자의 다수는 한국 사회의 중산층이었다. 그래서 사목방향 역시 중산층을 중심으로 계획되어 가난한 자에 대한 교회의 배려가 소홀했다. 우리 교구 역시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한 사목활동을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배정하고 있는지 자문해볼 일이다. 대도시에는 중산층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냉담 신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 진정한 냉담 교우 파악 및 회두 노력 : 천주교회로부터 상처를 입고, 천주교회를 미워하고 심하게 비판하는 ‘진정한 냉담 교우’도 드물지 않게 있다. 이들을 포기할 것인가? 이들에 대한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보여야 한다. 아울러 냉담 원인을 분석하고, 구역장(반장)의 협조를 통해 다가가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 본당 사목자들의 쇄신과 성찰 필요
- 고해성사의 접근성 개선 : 미사 전이나 판공성사 때가 아니라 평상시 고해성사 시간을 별도로 마련하는 방법이나 지구별 상설고해소 운영 등을 통해 고해성사의 은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 ‘주일 미사와 고해성사에 대한 한국 천주교회 공동 사목 방안’을 잘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 냉담 교우를 위한 과감한 예산 배정
- 냉담 교우 회두 운동은 본당 선교위원회를 통해 작년 매 뉴얼과 동일하게 진행해야 한다. 냉담 교우 회두 운동에는 핑계거리를 찾을 수 없다. 왜냐하면 선교 대상자 보다 냉담 교우는 주변에 너무나 많이 널려있다.

3. 작은 아들을 찾아 나서는 기도 - 냉담 신자 방문 전 기도

분노에 더디시고 자비하신 하느님 아버지,
아버지의 자비는 어떠한 죄보다 크시고
그 무엇도 용서하시는 당신의 사랑을 막을 수 없으니
당신의 자비는 언제나 기쁨과 고요와 평화의 샘입니다.

당신 품을 떠난 작은 아들을
가엾은 마음으로 안타깝게 기다리시는 아버지,
당신의 자비를 전하기 위해
저희가 먼저 자비로운 사람이 되게 하소서.

저희 모두가 아버지 품을 떠난 작은 아들을
용기 내어 찾아 나서게 하시고
그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게 하소서.

그 안에 아버지 품을 그리워하는
내적인 충동이 일어나게 하소서.
아버지 품이 그리워 돌아오는 그를
아버지의 마음으로 반기려 달려가게 하소서.

아버지의 자비하신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큰 아들처럼
완고한 저희의 마음을 풀어주시고
자비와 연민의 온유함으로 채워주시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 작은 아들과 함께
기쁨과 평화의 흥겨운 구원 잔치를 벌이게 하소서.

“모후이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4. 2016년 안동교구 사목활동 지침

이러한 배경에 따라 안동교구는 2016년도 사목활동 지침을
크게 두 가지로 설정하였다.

1 보편교회 - '자비의 해' 성년 거행

“교회가 있는 곳 어디에서나 하느님 아버지의 자비가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 본당과 공동체, 단체와 운동 곧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에서는 누구든지 자비의 안식처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자비의 얼굴」 12항)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하느님의 자비를 ‘복음의 뛰는 심장’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교회가 하느님의 자비를 전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스스로 자비를 살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라 할 수 없습니다.”(2016년 사목교서 5항)

- 본당 구역 내 소외된 이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한다.
- 본당 예산의 자선비를 늘리고 사회복지 관련 활동단체를 만든다.
- 신자들이 고해성사의 은총을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한다.
- 자비의 육체적 영적 활동을 구체적으로 실천한다.(2016년 사목교서 6항 참조)
- 용서의 도구가 되어 사랑과 화해의 공동체를 만든다.
- 이기심과 무관심의 장벽을 허물고 세상의 아픔과 함께 한다.

2 안동교구 - '아버지 품을 떠난 작은 아들 찾기' 운동

“회년이 우리에게 선사한 은총의 시기에 하나님의 많은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여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자비의 얼굴」 18항)

“아버지의 품을 떠난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자비를 배우고 익히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가 그들 마음속을 파고들도록 해서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하는 내적인 충동을 일으키게 해야 합니다.”(2016년 사목교서 8항)

- ‘작은 아들을 찾아 나서는 기도’
(냉담 신자 방문 전 기도)를 바친다.
- 구역(반) 모임을 활성화 하고,
구역 내 냉담 신자들을 찾아 나선다.
- 가족 냉담자와 청소년, 청년 냉담 신자들에게
애정 어린 관심을 보인다.
- 영적으로 냉담한 신자들을
올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한다.
- 돌아온 신자들과 함께
사랑과 친교의 공동체를 만든다.
- 본당 선교위원회를 정례화 한다.

2

냉담 교우 찾기 어떻게 할 것인가?²⁾

‘100-50-30’

위 숫자는 몇 년 전 가톨릭 신문에 보도 된 기사의 소제목이다. 기사에 따르면 선교활동을 통하여 100명을 입교시키고 나면 그 중에서 50명 정도가 세례를 받고, 세례 후 1년이 지나고 나면 30명만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다.

흔히 듣는 이야기 가운데 “어떻게 하려고 새 신자만 찾아 입교시키는가? 그보다 훨씬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냉담 교우를 회두시키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현실은 새 신자도 제대로 찾지 아니하고 냉담 교우 회두도 시키지 않고 있다. 아무런 선교활동을 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본당이 대부분이다. 특히 냉담 교우 회두 활동이 그렇다.

냉담 교우들이 다시 하느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관심과 사랑의 표현이 있어야 한다. 하느님께서는 한 마리의 잃은 양 때문에 노심초사 하시는 분이시다. 또한 돌아오는 잃었던 아들의 모습을 먼발치에서 보고 달려가 목을 끌어안으며 기뻐하시는 아버지와 같으신 분이시다.(루카 15, 1-32)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실천하는 신앙인이라면 이러

2) 타 교구 사목국과 공유하고 있는 자료 참조 및 인용

한 하느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참다운 협력자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하느님 품을 떠나 있는 냉담 교우들에게 다가가서 하느님의 사랑을 전해야 한다. 이를 통하여 냉담 교우들이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필요가 있다.

1. 냉담 교우 찾기 운동의 단계

1) 개요

구분	기간	추진내용	비고
실 천 단 계	45일간	• 운동 선포식 • 현수막 및 표어 부착으로 선교분위기 고조 • 회두 대상자 봉헌 • 미사전례에 선교 지향 도입 (미사 전 묵주기도, 보편지향기도, 평화의 인사 등) • 구호 제창 • 소식지 발행 • 선교 리플렛, 선물 배부 • 금식기도, 성체조배 실시(1-2차) • 선교 교육(미사 중) • 꾸리아, 주일학교 간부와의 회합(2차) • 구역별 실적표 게시 • 모든 강론, 훈화 내용을 선교로 집중 • 선교본부 상황실 운영 • 활동 대상자들에게 신부님 서신 발송 • 활동 대상자 방문하기(선물 전달) • 포스터 부착(성전 내외)	강사 선정

구분	기간	추진내용	비고
총 력 단 계	15일 내외	• 활동 대상자에게 전화, 편지쓰기, 방문하기 • 활동 대상자에게 신부님 초대장 발송 • 꾸리아, 주일학교 간부와의 만남(3차) • 구역(반) 모임에서 나오는 건의 및 문제점 파악 • 준비 및 실천단계의 활동 재점검 • 실적 부진 구역 지원 방안 모색 • 금식기도, 성체조배 실시(3차) • 활동 대상자의 미사 참여 실적 확인 • '감사의 밤' 프로그램 확정 • 본당 대청소 • 회두자 선물 준비 • 고해성사 방법 결정 • 활동성과를 예상하여 교구청에 보고	
감 사 의 밤		• 안내위원 배치 • 회두자 선물준비(고해성사 때?) • 예식 안내서 배부 • 고해 성사(합동 고해예절, 손님신부님 초청) • 환영잔치 • 전야미사	

2) 단계별 세부 실천사항

① 준비 단계(분위기 조성 단계)

(ㄱ) 냉담 교우 찾기 기도문 작성

(ㄴ) 현수막 설치, 후보 공지, 미사 중 공지(시작일과 종료일을 명시)

(ㄷ) 구역·반장 교육 실시(방문 및 신상 카드 작성 요령)

(ㄹ) 구역·반장에게 보내는 사목 서신 작성

※ 목표를 설정하는 여러 가지 방법

- 가족 중 냉담 교우 모셔오기

구분	기간	추진내용	비고
준비단계	30일간	• 운동추진위원회 결성 및 첫모임 • 팀별 활동 계획 점검 • 단계별 세부 계획 내용 확정 • 꾸리아, 주일학교 간부와의 회합(제1차) • 전신자 대상 홍보: 강론 및 후보 • 선교 기도문 및 선교 표어, 운동가 공모 • 현수막, 포스터, 표어 제작 • 신자 임무 카드 배부-구역(반)장, 단체장 • 구역별 활동 목표 확정 • 신부님 사목서신 발송 • 구역(반) 모임(형제회 포함)은 선교운동을 주제로 개최	우수작 시상 구반장 교육시

- 한 세대가 한 세대 모셔오기

- 반 별로 목표 정하기

- 냉담률 ()% 달성하기 : 냉담률 ()%로 줄이기

- 관공성사율 ()% 달성하기 : 관공성사율 ()% 높이기

- 주일미사 참례율 ()% 달성하기 : 미사참례율 ()%높이기

※ 활동 대상자 선정(3주간)

- 교적상 3년 이상 판공성사 미참여 신자
- 1년 이상 교무금 미납입 신자(가정형편 고려)
- 구·반장이 추천한 신자
- 교적 미정리 상태로 거주하는 신자

② 실천 단계

(ㄱ) 활동 대상자에게 사목 서신 발송(1주간)

- 발송 대상자는 선정된 방문 대상자 전원
- 발송방법은 사신이 아닌 우편을 통한다.
- 초대일 40일 전에는 발송한다.

(ㄴ) 1차 대상자 방문 : 2주간

- 서신 발송 1주일 후부터 방문을 개시한다.
- 대상자 방문은 반장이 방문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사정에 따라 반원, 레지오 단원 등이 대신 할 수 있다. 단 지속적 관심이 가능한 사람이라야 함.
- 신상카드는 냉담 교우 면전에서 절대 작성하지 않는다.
- 대화는 신부님 서신 도착 여부를 확인 후 죄책감이나 수치심이 없도록 편안하게 유도하되 냉담사유를 정확히 알아낸다.
- 특기할 사항이 있으면 본당 사무실과 사목회에 연락한다.

(ㄷ) 활동 방법 : 방문방법

- 되도록 2인 이상이 방문한다.(관심이 많음을 보여줌)
- 2회 이상 방문한다.
- 방문 전 기도하고 신상카드를 확인한다.
- 선물을 준비한다.(사랑의 편지, 테이프, 성화, 상본, 신심 서적, 주보, 교회간행물, CD 또는 DVD, 참기름, 생수, 장미꽃 등 본당 사정에 맞게)
- 대화를 나눈다 : 정중하고 사랑이 담긴 자세로 한다. 논쟁은 금한다.
- 방문 후 기도하고 신상카드를 작성한다.
- 도움 받을 사항이 있으면 본당에 알린다.

(ㄹ) 첫 활동 후 : 대상자카드 분석

활동 결과를 분석하고 나면 냉담 교우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만약 학생의 경우는 주일학교(청소년위원회), 극빈자는 사회복지분과 또는 관련단체, 가정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수녀님, 가치관이나 종교적 갈등이 냉담 원인이라면 신부님이나 레지오의 정예 단원, 가정에 우환 등이 있어 기도가 요청되는 경우에는 성령기도회와 협조하여 추가 방문 활동을 해야 한다.

(ㄴ) 2차 대상자 방문 : 2주간

- 소책자(냉담 교우 회두권면용)를 활동대상 세대별로 구입
- 속표지에 신부님 서명이나 격려의 말을 기록한다.

- 1차 활동자들이 동일한 대상자들을 방문하여 책자를 전달한다.
- 교우들의 기도 등 환영분위기를 전달하고 새롭게 신앙을 다시 시작할 계기임을 말한다.
- 초대일의 프로그램을 설명해 준다.

③ 총력 단계

(㉠) 초대장 발송 : 초대일 10일 전

- 초대장의 외관은 정성을 나타내고 내용은 간곡하게 작성하여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정성이 느껴지도록 한다.
- 초대일의 행사 프로그램을 잊지 않고 기재한다.
- 초대장의 전달은 본당 사정에 따라 방법을 정한다.(우송, 사송)

(㉡) 냉담 교우 초청 행사

- 주일이나 공휴일을 택한다.
- 성전 내외에 환영분위기를 고조시켜 오랜만에 성당을 찾는 사람들에게 정성과 흥겨움을 느끼게 한다.
- 합동 고해성사에 임하게 한다. 사정이 허락되면 냉담 교우 초대일에 고해성사 후 합동 참회예절과 양형영성체를 실시한다.

3) 냉담 교우 찾기 운동 시 유의점

① 냉담 교우에 대한 이해와 수용의 자세

냉담 교우들은 신앙생활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이들이다. 만약 그들이 신앙공동체를 통해 하느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체험한다면 열정적인 신앙인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떨어진 이유를 우선 파악하고 사랑으로 접근하여 문제점을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한다. 냉담 발생 요인은 본인 스스로의 책임일 수도 있겠지만 교회 공동체의 책임도 있을 것이니 사제, 수도자, 신자 모두는 냉담 교우들이 인격적인 만남 속에 성사 생활의 참된 의미를 깨우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교회가 그들을 다시 교회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신앙의 기쁨을 나누게 하는 것은 분명 교회가 본질적으로 가져야 할 사랑의 표시이자 실천이다. 성직자들은 생명력 있는 말씀을 전달함으로써 믿음을 일깨워주고, 다양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활기 찬 신앙생활이 되도록 이끌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냉담 교우들의 마음은 움직일 것이다. 냉담했던 이들이 다시 교회에 돌아왔을 때 본당 공동체 구성원들 모두는 사랑의 눈빛으로 그들을 맞이하고, 관심과 배려를 통해 새로운 그리스도인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냉담 교우들을 방문하고 대화를 나눌 때 우리가 지녀야 할 마음가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그들을 이해해야 한다.

인간은 나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의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들의 처지, 분노, 감정들을 이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 우리는 그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선교 사명에는 복음화와 재복음화를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공동체로부터 떨어진 양들과 길 잃은 양들 또한 공동체의 구성원임을 복음서는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길 잃은 양들도 찾아 나서기를 교회에 요청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냉담이 냉담 교우 자신의 탓이라거나 신앙의 미성숙 탓으로 돌리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겠다. 예수님께서도 아흔 아홉 마리 양보다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헤매셨기 때문이다.(루카 15장)

(㉢) 신앙의 동반자라는 인식을 심어 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먼저 그들의 고통을 인정하고 이해하며 함께 나누려는 동반자적인 의지를 보여 주어야 한다. 같은 하느님의 자녀로서 그들을 위로하며 우리의 고통 한가운데서 유일한 참 위로자는 하느님 한 분이심을 이야기 해 주도록 하자.

(ㄷ) 냉담 교우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반성해보자.

냉담 교우를 대할 때 무조건 성당에 나오라는 말만 되풀이하지 않았는가? 아니면 불편하고 거북한 상대를 대하듯 하지 않았는가? 대부분의 냉담 교우들은 하느님을 그리워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으로는 우리에게 위로를 받고 싶어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들을 대할 때 그들이 냉담한 반응을 보이거나 거부할 때도 우리는 당황하거나 감정적으로 그들을 대할 필요는 없다. 그들의 진정한 내면의 마음을 읽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유형별 대화요령

(ㄱ) 교회 전체에 대한 실망으로 인해 냉담한 경우

지상 교회의 구성원들은 인간이므로 각자의 한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고, 보이지 않는 은총에 대해 설명해 준다. 성직자나 수도자를 통해 쉽게 이를 깨달을 수 있도록 만남을 주선해 본다.

(ㄴ) 세속적 가치추구의 경향으로 냉담한 경우

다양한 교육을 통해 신앙생활에 맞들일 수 있도록 본당 공동체는 냉담 교우들을 세심히 배려해야 한다. 그리고 열심한 주변 신자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목표는 하느님 나라에 있음을 알려준다.

(ㄷ) 신앙생활의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

우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을 인정하며 대화의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세속적인 끈을 놓아야 함을 설명하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는 것은 아직도 세속적인 쾌락을 뿌리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부질없는 것임을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거나 또는 세상이치에 비추어 설명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ㄹ) 인간적인 갈등이 있는 경우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인간적인 갈등으로 인한 냉담은 지극히 감정적이기 때문에 그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며 위로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을 갖는 것이 누구를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궁극적인 구원을 위한 것임을 인식한다면, 인간으로 인한 상처나 갈등은 자신이 하느님께 나아가는데 아무런 장애가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간곡히 설명한다. 인간은 누구나 불완전한 존재이며 거기에는 사제와 수도자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도 덧붙여 설명한다.

(ㅁ) 금전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

어떤 신자가 교무금과 각종 헌금 등 금전적인 부담으로 냉담한 경우, 성경에 입각해 설명하되 가급적 본인의 처지와 의지에 맡겨야 한다. 즉 헌금에 대한 부담이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표시로 헌금을 이해하게 하고, 이를 강요하는 것은 누구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한다. 나아가 헌금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닌 정성의 문제라는 것을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로 설명해 주어도 쉽게 받아들일 것이다.

(h) 직장이나 생활에 쫓기는 경우

이 경우 너무 바리사이적 시각(율법적 원칙만 강조)으로 대화를 한다면 거부감만 가증될 뿐이므로 그의 처지를 이해하고 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한다. 주일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본당신부와 상의하여 대안을 찾아야 한다. 우리는 누구나 벌어야 먹고 살 수 있다는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그들이 처해있는 상황에 공감을 표하며 대화를 나누고 대안을 함께 고민하는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한다.

몸은 비록 교회 밖에 있지만 마음은 항상 주님을 간직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또한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고 계심을 깨닫도록 알려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주보전달을 비롯한 교회의 소식을 전하고 교회가 그들을 결코 잊지 않고 있다는 소속감과 유대감을 갖도록 돌본다.

③ 냉담 교우와 대화 시 유의할 점

(ㄱ) 그를 위해 먼저 기도한다.

대화에 앞서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기도로 청하고 또한 상대의 마음을 열어 주실 것을 구해야 한다.

(ㄴ) 감정적 대응은 금물이다.

냉담 교우들은 이미 여러 이유로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그들의 뜻에 상관없이 찾아 나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교우가 우리를 통명스럽게 대하더라도 감수해야 한다. 자칫 그들의 언행에 실망하거나 훈계조의 대응은 방문하지 않는 것보다 더 해롭다.

(ㄷ) 설교 하지 말라!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냉담 교우들에게 전달될 수 있으면 방문의 목적을 상당 부분 이룬 것이다. 신앙 문제에 대한 어설픈 설교는 때론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깊은 신앙지식과 체험을 지니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ㄹ) 처음부터 신앙적인 대화는 지양해야 한다.

우리의 방문목적은 그들은 한 순간에 알아차린다. 마음의 부담을 갖지 않도록 일상적인 안부를 물어 냉담 교우들이 쉽게 대

답하고 대화할 자세를 갖게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 번의 대화로 회두시킬 작정이었다면 그것은 과욕이다. 꾸준한 시도로 상호 간에 대화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방문자가 신앙의 기쁨을 잃지 않는 태도를 견지한다면 그들이 먼저 신앙에 대해(본당사정, 자신의 영신사정, 방문자의 활동 모습에 대한 존경심 등) 이야기 할 것이다.

④ 냉담 교우 회두를 위한 자세

(ㄱ) 선교 활동은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미국소매상협회의 조사에 의하면 판매원의 48%가 전화 한 번으로 포기하고, 25%는 두 번의 전화권유 만에, 15%는 세 번 만에 포기한다. 즉 88%의 판매원이 1~3번 전화하고 반응이 없으면 포기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머지 12%는 끈질기게 전화해서 판매에 성공하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 12%가 전체 판매량의 80%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물건 파는 판매원도 이처럼 포기하지 않는 열정으로 소득을 올리는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고작 한두 번 만에 포기한다면 그건 무책임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선교 활동은 그리스도인이 포기하지 않는 열정으로 마지막까지 수행해야 하는 지상과제이다.

(ㄴ) 감동을 주어야 한다.

선교활동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는 천편일률적인 경우가 많다. 특히 냉담 교우 회두활동에서는 더욱 그렇다. 사무적이고

기계적인 말과 행동은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 사람들은 관심과 사랑에 메달라하고 있다.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은, 찾아가되 사랑의 마음으로 대상자를 방문하는 것이다. 다음은 어느 주일학교 교사의 체험담이다.

“중간고사 기간 중 제가 맡은 학생들의 집을 방문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저는 비타민 음료수, 초코파이를 사서 밤 11부터 방문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잠을 안자고 있습니다. 아이들 집 앞에 가서 전화를 합니다. ‘뭘 하냐?’, ‘공부합니다?’, ‘그럼 내려와.’ 그래서 내려오면 2~3분 격려해주고, 음료수 먹이고 초코파이 주고, 축복을 청하는 기도를 한 번씩 해줬습니다. 한 10명 돌았는데 새벽 2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니다보니 어떤 학생은 ‘음료수 얼마짜리예요?’ 라고 묻는 녀석도 있었고, 절반 이상은 제가 보기에 감동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이 일이 있은 후, 성당에 잘 안 나오던 아이들이 갑자기 ‘주일학교 잘 나갈게요. 성당에 나갈게요. 감사합니다.’ 라고 먼저 말을 하더군요.”

(ㄷ) 모욕과 좌절을 딛고 일어서야 한다.

선교활동 과정에서 선교사들을 기다리는 것은 환대와 친절이 아니라 냉대와 무관심이며 심한 경우 모욕을 당할 수도 있다. 이때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성경의 예언자들도 냉대에 따른 고통을 겪었다. 그러나 하느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를 극복할 수 있었다.

“주님의 말씀이 저에게 날마다 치욕과 비웃음거리만 되었습니다. ‘그분을 기억하지 않고 더 이상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으리라’ 걱정하여도 뺏속에 가두어 둔 주님 말씀이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오르니 제가 그것을 간직하기에 지쳐 더 이상 견뎌 내지 못하겠습니다.”(예레 20,8-9)

(ㄷ)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활동해야 한다.

선교활동에 나선 신자들이 가끔 자만심과 허영심에 빠진 나머지 하느님의 영광을 가릴 위험에 노출되기도 한다. 자기만이 열심히 성령 충만하다는 자만이 마음에 가득 차 있을 때, 예수님을 팔았던 유다에게 들어간 사탄이 그에게 찾아갈지 모른다. 그렇게 되면 더 열심히 보이는 교우를 시기질투하고, 무고히 모함하는 거짓 증인의 역할도 서슴없이 하게 되고, 비신자보다 못한 자리로 내려가 버릴 수도 있다.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일을 오직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1코린 10,31)



3

냉담 교우 회두사례 - 본당 사례³⁾

735명!

이 수치는 약 1년 반에 걸친 우리 본당의 ‘냉담 교우 찾기 운동’에서 이루어 낸 냉담 교우 회두 인원으로, 이는 산본본당 전체 냉담자 수의 37%에 이른다. 이 결과가 정말 남들에게 내세울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인가 하는 부끄러움이 있지만, 본의 아니게 언론매체에 보도가 되고 주변의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 이왕 이렇게 알려지게 된 상황이라면 지금까지 진행하여 온 ‘냉담 교우 찾기 운동’과 이를 추진하면서 겪었던 잘잘못과 아쉬웠던 점을 정리하여 다른 본당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은 수원교구 산본본당의 ‘냉담 교우 찾기 운동’을 정리한 것이다.

1. 준비

1) 주임 신부님의 강력한 의지 표명

- 2010년 본당 사목교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주임 신부님

3)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복음화위원회가 “새로운 복음화와 냉담 교우 회두”라는 주제로 개최한 특별 세미나 발표 자료 - 수원교구 산본 본당 사례 - (2011년 10월 7일, 명동대성당 포스트홀)

이 올해 사목의 가장 큰 핵심 과제는 냉담 교우 회두 권면이며, 총 냉담자의 50%를 회두시키자는 사목 방침 발표에 모든 상임위원들의 얼굴은 놀란 표정이 되었다.

- 말도 안 된다고 여겨지는 목표였지만, 관련된 회의를 몇 번에 걸쳐 실시하였다.
- 회의 초반에는 불만과 불평이 난무하였지만, 신부님의 의지가 너무 강력하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느끼면서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2) 상임위원 및 선교분과의 변화

- 해마다 해왔던 냉담 교우 회두 운동이었으므로 현실성 있는 목표로 수정하자는 의견들을 내놓았지만, 워낙 확고한 신부님의 의지를 확인하고 모두들 당황하였다.
- 회의를 거듭할수록 처음에 가졌던 부정적인 마음이 조금씩 사라지고, 한 번 이 목표에 도달해보자는 상임위원들과 선교분과위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 그러한 높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이 아닌 좀 더 신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고, 모든 신자들이 방관자가 아닌 본인들의 일이라는 생각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게 되었다.

2. 단계별 활동시작

1) 1단계 : 구체적인 활동 방안을 계획하고 신자들의 공감대 형성

이러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시행하였던 것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우리 가족 찾기 기도문을 만들어 모든 미사와 단체 모임에서 함께 기도문 바치기(공감대 형성)
- ② 봉헌카드를 만들어 모든 신자들이 자기가 모셔야 할 냉담 교우의 이름을 적어 제대에 봉헌(하느님과의 약속)
- ③ 교중미사 중에 ‘냉담 교우 찾기’ 선포식 및 파견식 거행(예식을 통해 중요성 강조)
- ④ 교중미사 전 성당 입구에서 상임위원들이 전교 노래 부르기(관심 유도)
- ⑤ 소공동체 봉사자와 레지오 단원들에게 냉담 교우 회두 권면 방법 교육 실시(방문용 선물 준비 : 묵주, 물티슈, 반짇고리, 리플렛 등)
- ⑥ 제대 앞에 모든 냉담 교우 명단(신부님 미사지향)이 적혀 있는 배너를 만들어 신자들이 내가 봉헌한 쉬는 교우가 항상 제대 앞에 이름이 적혀있다는 생각을 갖게 하였다.

2) 2단계 : 본격적인 ‘냉담 교우 찾기 운동’ 돌입

- 5월 ‘성모성월’을 맞아 매일 저녁 8시에 본당 앞마당에 모여 냉담 교우 찾기를 지향하며 묵주기도 5단을 바쳤다.(구역별 날짜 책임제를 정하고, 그날은 특히 그 지역의 쉬는

교우를 지향하며 기도 바침: 매일 100명 정도가 모여 기도함)

- 모든 냉담 교우에게 신부님 친필 편지를 발송하고, 작은 선물도 보냄(‘냉담 하는 나를 신부님이 생각하며 기도해주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갖게 하였고 효과가 컸다.)
- 냉담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보좌 신부님과 수녀님께서 직접 가정방문을 하여 면담(불편해 하는 청소년들도 많았지만, 신부님 수녀님의 직접 가정 방문에 놀라워했고 효과가 컸다.)
- 각 지역별로 해당 지역 냉담교우들을 위한 ‘고리기도’ 실시(지역별 구체적인 대상자들을 호명하며 고리기도를 하고 스스로 냉담 교우 회두 권면에 적극적이 되도록 유도)
- 전 신자들을 대상으로 냉담 교우를 모시는 방법에 대한 특강을 2회 실시하였다.

3. 1차 활동 종합

〈9개월간 활동 종합〉

- 1월부터 9월까지의 ‘냉담 교우 찾기 운동’ 결과를 종합하여 전체 교우들에게 공지
- 1) 각 지역의 냉담자 수의 현황 및 회두 권면 인원을 도표로 본당 로비에 게시(우리 지역과 다른 지역의 결과를 보며 선의의 경쟁을 유도)
- 2) 본당의 목표와 현재까지의 결과를 보면서, 무엇이 잘 되었고 잘못되었는가를 분석하고 좀 더 나은 방안을 제시하도록

록 하였다.(결과에 대한 난상토론 및 보완책 강구)

- 각 구역장들의 ‘냉담 교우 찾기 운동’ 추진 과정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보완 및 지원책 마련(선교활동비 지급, 냉담 교우 모시기 외부 전문가 특강 실시, 냉담 교우 모시는 날 지정 등)
- 이러한 것을 종합하여 12월 관공 때 모든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활동과 노력을 집중하였다.

〈2010년 결과 종합〉

- 12월 3일을 ‘냉담 교우 모시는 날’로 정하고 모든 활동과 노력의 결실을 그 날에 맞추어 시행하였다.
- 우선 가능성이 있는 냉담 교우를 모니터링하여 소공동체 봉사자들이 집중 공세를 펴기로 하였다.
- 봄철에 시행하여 효과가 컸던 신부님의 친필 편지를 다시 작성하여 보냈다.
- ‘냉담 교우 모시는 날’ 행사를 개최하였다.
-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우리 본당은 2010년 한 해 동안 총 388명이 회두하였다.
- 이는 우리가 1차로 목표했던 30%에는 많이 부족한 19.2% 수준에 불과하지만 우리는 2010년의 운동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점을 느끼고 다짐할 수 있었다.

- 1) 과거에 했던 ‘냉담 교우 찾기’는 몇 달간 아무리 노력하여도 50명 이상이 되기 힘들었지만 그 고정 관념을 깰 수 있

었고, 그동안 우리의 노력이 많이 부족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 2) ‘냉담 교우 찾기 운동’은 일부 해당 봉사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본당 신부님부터 모든 신자들이 함께해야 효과가 크다는 것을 느꼈고, 어떻게 하면 모든 신자들이 방관자가 아닌 운동의 주체자로 참여케 할 것인가가 성공의 핵심요소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 3)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면 내년에는 목표치 이상의 성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 4) 그리하여 내년에도 다시 한 번 해보자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4. 2011년 활동

〈2011년 활동방향 설정〉

- 2010년의 결과가 고무적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모든 신자들이 이 운동에 대한 피로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다른 추진 동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 2010년에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쉬고 있는 냉담 교우들이 과거에 비해 매우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기에 조금만 더 노력하면 좀 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 이러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짧은 시간에 집중 공략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모든

활동을 2011년 부활 판공에 집중하기로 하였다.

〈2011년 활동〉

- 2010년에 이어 2011년에도 모든 신자들이 냉담 교우를 봉헌하도록 하였다.(작년에 못했던 부분에 대한 반성과 재도전의 용기를 심어 줌)
- 냉담 교우들에게 '참소중한당신'이라는 월간지를 발송하였다(월 330부씩 1년 구독)
- 2010년 겨울방학을 이용해 보좌 신부님은 학생 냉담자 가정 방문으로 큰 성과를 보았다.(우려되는 부분도 많았지만 결론적으로 큰 성과를 가져 옴)
- 주임 신부님은 사순시기에 냉담 교우 가정을 방문하였다.(매우 이례적인 것이라 우여곡절도 많았음)
- 마지막으로 주임 신부님의 친필 서신 '부활절 편지'를 발송하였다.

〈2011년 부활판공 결과〉

- 정말 놀랍게도 2010년 한해동안 노력해서 얻은 '냉담 교우 찾기' 결과가 388명인데, 고작 3개월의 노력으로 추가로 찾아낸(성사를 본) 냉담 교우가 347명에 이르는 믿기 어려운 결과를 얻게 되었다.
- 물론 2010년부터의 노력의 영향이 2011년까지 지속되어 이러한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짧은 기간에 많은 쉬는 교우를 찾아 내었다.

5. ‘냉담 교우 찾기 운동’ 종합

- 우리 본당은 2010년 초부터 2011년 부활 관공까지 추진된 ‘냉담 교우 찾기 운동’을 통하여 총 735명의 냉담교우가 냉담을 풀고 성당에 다시 나오게 되었다.
- 이 숫자는 과거에는 상상하지도 못한 것이었고, 우리가 생각해도 스스로 대견하다는 느낌을 가지게 만들었다.
- 초기에 본당 신부님의 사목방침에 냉소적이고 부정적인 시각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보람 있는 일이었다며 적극적인 생각으로 바뀌게 되었다. 또한 이를 통해 우리가 주님께 조그만 기쁨을 드렸다는 자부심이 우리 신자들 가슴 속에 자리 잡게 되었다.
- 그렇지만 이러한 결과가 나오기까지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낙담했던 모든 사건들은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모든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 그러한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누구보다도 먼저 사제와 수도자들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다시 힘을 얻고 한 단계 한 단계 진전할 수 있었다.(편지 보내기, 가정방문, 가두선교 등)
- 감히 말한다면 쉬는 교우를 찾는 것이야말로 정말 특별히 열과 성을 다하고 주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이 운동을 하면서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마다 항상 느낄 수 있었다.
- 또한 냉담 교우를 찾는 것이 단번에 결과를 얻지 못한다 할

지라도 그 노력이 절대 헛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다. 마치 권투선수가 잔 펀치를 계속 맞으면 그것이 누적되어 조그만 충격에도 쓰러지듯이 쉬는 교우들도 우리의 권유에 냉소와 무관심으로 대응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속에서는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다.

- ‘냉담 교우 찾기 운동’의 핵심이 소공동체 봉사자들과 레지오 단원들인데, 이들의 노력과 희생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 생각되기에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스스로 이러한 운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양성하여야 한다.
- 그러나 지금까지의 ‘냉담 교우 찾기 운동’이 우리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아직 쉬고 있는 교우가 많이 남아있기에 이 결과에 스스로도 취되어 자만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 분명히 우리의 노력이 조금만 지속되면 그것이 누적되어 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믿기에 쉬는 교우를 찾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 마지막으로 우리의 보잘 것 없는 결과에 주변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부담스럽지만, 이러한 운동 과정을 알리는 것이 조금이라도 하느님의 뜻에 부합된다고 생각되어 그 과정을 소개하였다.

※ 특기사항

〈보좌 신부님의 냉담 청소년 가정 방문 활동〉

- 대상 : 교적 중 냉담 학생들과 주일학교 등록자 중 잘 나오지 않는 학생들로 정함
- 방문방법 : 저녁 7~9시 사이, 부제님과 수녀님 도움으로 나누어 방문(200가정 이상 방문)
- 방문내용 : 가정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학생 이야기 청취, 준비해 간 초콜릿 선물
- 방문 과정의 주요 내용
 - 1) 갑작스런 방문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가 호의적으로 맞이함.
 - 2) 냉담 사유로 예상한 ‘시간이 없다’, ‘학원 가야한다’, ‘재미가 없다’는 이유보다는 ‘친구가 없다’, ‘외톨이여서 힘들다’는 답이 대다수였다.
 - 3) 결국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사유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 보좌 신부님 말씀 요약

친구가 되어 주고 특히 소외받는 학생들에게 더 큰 관심을 가져 그들이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청소년들이 교회와 신앙 안에서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돕는 길이라 생각하게 되었다.

〈주임 신부님 가정방문 활동 사순시기〉

- 대상 : 냉담가정 350여 세대

- 방문방법 : 소공동체 봉사자들과 함께 가정을 방문

- 방문 과정의 주요 내용 :

- 1) 현관문조차 열어 주지 않고 인터폰으로 '나는 이제 성당에 다니지 않는다. 할 얘기 없으니 그냥 돌아가라' 며 문전박대를 당하기도 하였고, 어떤 냉담 교우는 '5분만 기도를 해드리고 가겠다' 고 간청하는 데도 '애들 공부에 방해가 되니 그냥 가라' 며 거절하기도 하였다.
- 2) 냉담 교우들이 본당 신부와 만남 자체를 피할 것 같아 방문을 미리 알리지 않았지만, 10번 중 7~8번은 문전박대를 당하였다.
- 3) 그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많은 냉담자들이 신부님께서 직접 자기집을 방문하고 기도를 해주시는 모습에 감명을 받고 냉담을 풀게 되는 사례가 많았다.
- 4) 방문했을 때 집에 아무도 없는 경우 문밖에서 기도를 하고 준비해 온 책자를 문고리에 걸어두고 왔는데, 신부님이 다녀간 것을 알고 감동해 성당에 나온 사례가 있었으며, 어느 냉담 교우 가정에서는 신부님의 가정방문에 감동해 눈물을 흘리며 냉담을 푸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

- 본당신부님 말씀 요약

- 1) 신부님께서 직접 냉담 교우집을 방문할 때 그들의 싸늘한 반응에 스스로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했지만, 그들의 상처 또한 얼마나 컸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 2) 결국 그들의 아픔이 ‘내 탓’이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마음이 편해졌고, 현관문조차 열지 않고 외면하는 냉담교우들을 보면서 더욱 낮은 자세로 신자들을 섬기는 사목을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냉담 교우 찾기’ 운동 과정의 에피소드〉

- 냉담 교우에게 ‘참소중한당신’ 월간지를 1년간 구독하게 해주었는데, 처음 배달된 책의 표지모델이 돌아가신 이태석 신부님이었다. 평상 시 무척 그 신부님을 존경하고 있었기에 월간지 표지 사진만 보고도 다시 성당에 나가야겠다고 다짐하고 10년 간의 냉담을 푼 자매가 있었다.
- 한 지역의 지역장이 냉담자 초대 날에 자기 지역에서 한 명도 참석하지 않은 사실에 인간적으로 화도 나고 속상하여서 구역장, 반장들을 모아 놓고 스스로 자책하는 눈물을 흘렸다. 이 모습을 본 지역의 모든 신자들이 민망하고 미안하여 ‘우리 지역장님을 기쁘게 하자’며 일심동체가 되어 활동한 결과 성탄 판공 때 가장 많은 수를 회두시켜 상금과 상장을 받았다.
- 15년 이상 냉담하고 있는 남편에게 결혼기념일 선물을 해달라며 꼭 들어주기로 약속을 얻어낸 다음, 성당 가서 고백 성사 보고 함께 성당 다니자고 했더니 흔쾌히 남편이 약속을 지켜 지금은 부부가 다정히 성당을 잘 다니고 있었다.

4

기타 자료⁴⁾

1. 사랑의 초대장 쓰기

각자가 특별한 관심으로 기도하고 있는 대상자의 냉담 사유를 살펴보면서 사랑의 초대장을 써 본다. 통상적인 냉담의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냉담 이유

- ① 생업 / 학업에 바빠서
- ② 교회에서 실망을 느끼고 상처 받아서
- ③ 신앙생활에 대한 회의
- ④ 여가 및 취미생활에 지장
- ⑤ 가족 내 종교 갈등
- ⑥ 고해성사에 대한 부담
- ⑦ 교무금 / 건축헌금에 부담

2) 편지 작성 요령

- ① 개인서신(1:1) 형태로 쓰라.

4) 서울대교구 사목국 선교전례사목부의 자료 참조 및 인용

- ② 상대방의 냉담 동기에 귀 기울이고 충분히 공감하라.
- ③ 상대방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라.
- ④ 진정 어린 설득으로 상대방을 감동 시켜라.

2. 편지 예문

1) 본당신부가 작성한 사랑의 편지 예문

요즘 성당 나오시는 발걸음이 조금 뜸하셨지요? 신앙생활을 잠시 쉬고 계시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줄 압니다.

우리는 종종 바쁜 일상에서 세례 받았을 때 느꼈던 기쁨과 마음의 평화, 그리고 가톨릭 신자로서 자부심을 잊고 살아갑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직장, 가정, 개인적 문제로 힘들 때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든 길일 수도 있습니다. 한 순간 잘못된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나약함을 아시기에 모든 것을 다 이해하시고 매일 같이 형제(자매)님께서 돌아오시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느님 품은 당신을 향해 언제나 활짝 열려있습니다.

세상에서 치유되지 않는 아픔! 이제 하느님 품으로 돌아와 치유 받고 신앙생활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본당 신부인 제가 간절히 청합니다. 그리고 혹시 성당을 다니시면서 실망과 상처를 받으셨다면 진심으로 용서를 청합니다.

그동안 여러 이유로 성당을 멀리하셨지만 마음으로는 언제든지 기회가 되면 다시 성당에 나가리라는 생각을 갖고 계셨을 것입니다. 언젠가 하던 기회는 바로 지금입니다. 저희 본당 신자들이 수일 내로 형제(자매)님을 찾아뵙고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성당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남아있거나 말할 못할 고민이 있으시다면 성당에 나오셔서 저를 한 번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만나시기가 어렵다면 〇〇〇-〇〇〇〇로 전화 주십시오. 언제든지 반갑게 전화를 받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본당의 많은 신자들이 쉬고 계시는 형제(자매)님을 위해 매일 미사 전 기도와 고리기도를 바치며, 이번 성탄절에 꼭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식탁의 빈자리를 형제(자매)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〇〇본당 주임신부 〇〇〇 드림

2) 여가활동 때문에 냉담하는 교우에게

안 루시아 자매님께.

루시아 자매님, 안녕하세요?

지난 겨울은 유난히 춥더니 벌써 봄이 오고 부활절이 눈앞

입니다.

지난 해 판공성사표를 돌리며 우리 구역 4반 반장 사비나 자매님과 덕으로 방문했던 일이 기억납니다. 활발하게 레지오와 성모회에서 봉사활동을 하시던 자매님을 성당에서 뵈울 수 없어서였죠.

그때 루시아 자매님은 매주 형제님과 산에 가느라 주일을 지키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더욱이 등산모임 총무까지 맡으셔서 간식준비며 일이 많다고 했습니다. 등산은 건강을 위해서도 매우 좋은 여가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등산을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한편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몸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우리 영혼의 건강은 더 중요하다고 말이지요. 흔히 사람은 영혼과 육체를 가진 존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루하루의 삶을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밥을 먹고 일을 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세례를 받으며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갈망하고, 마귀의 유혹을 끊어 버리겠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인생의 종착역에서 결국 하느님과 만나는 것이 우리의 꿈이 아닐런지요? 주인을 피해 평일이나 토요일에 등산을 하시는 건 어떨까요? 오히며 한가하고 호젓하게 산의 정취를 맛보실 수도 있고, 주인을 지키지 못해 마음 불편해 하지 않아도 되니 말입니다. 주일에는 성당에서 뵈울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예전의 레지오 단원들과 성모회 자매님들도 루시아 자매님

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구역식구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다음 주에 전화 드리고 다시 한 번 찾아뵙겠습니다. 하루 속히 주님의 품으로 되돌아오시기를 기다리며 주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구역장 김 마리아 드림

3) 가족 간에 종교가 달라 냉담하는 교우에게

홍 세실리아 자매님께,

세실리아 자매님 안녕하세요?

날씨가 차갑습니다. 모처럼 오전 시간이 한가해 커피 한잔을 하며 음악까지 듣는 호사를 누리고 있네요. 아침기도 중 문득 자매님이 생각나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그간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요?

전에는 10시 미사 후 가끔 만남의 방에서 차도 나누곤 했는데 요즘은 좀처럼 뵙기가 힘드네요. 시어머니는 절에 다니시고 형제님은 아직 외인이시라며 신앙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시던 자매님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주일미사에 꼭 나오시고 노인대학에서 식사봉사를 하는 등

열심히했는데 근래에는 볼 수 없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온 가족이 다같은 신앙을 갖는다면 더 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처지에서 혼자 신앙생활을 시작한 자매님을 하느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때로는 용기를 잃기도 하고 가족의 눈치가 보이기도 하시겠지만 초창기 우리 신앙의 선조들을 생각하면 식구들이 한 신앙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 뭐 그리 큰 문제이겠습니까?

신앙은 사실 천저히 하느님과 나 자신의 1대1의 관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의 구원을 부모님이나 남편이 책임질 수는 없는 것이지요. 죽음의 문턱까지는 가족이 함께 하지만 죽음 이후의 세상은 완전히 하느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느님께서 가족 간에 신앙이 달라 어려움을 겪는 세실리아 자매님의 고동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모든 고동과 시련을 예수님께 봉헌하시고 예전처럼 다시 하느님 앞에 나오시기를 호소 드립니다. 용기를 내세요. 혼자 보다 함께 기도드릴 때 하느님께서 더 기도를 잘 들어주신다고 합니다. 교회에 모여 미사 드리고 열심히 기도드리다 보면 언젠가는 주님께서 자매님이 원하시는 대로 온 가족이 주님의 품 안에서 만나는 날을 허락하시리라 확신합니다.

성당에서 뵈기를 기다리며 오늘은 이만 줄입니다.

김 요안나 드림

3. 개인 차원의 대응방안

1) 상처 치유는 오감으로 공감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①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여 듣고 상대방의 상처에 깊이 공감하라.
- ② 상처를 준 우리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진정으로 사과하라.
- ③ 상대방에 알맞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라.
- ④ 위로의 손 : 두 손을 잡아주거나 가볍게 토닥여주면 사랑이 촉감으로 전달된다.
- ⑤ 고운 말 : 똑 같은 말을 해도 상대방에게 위로가 되는 말을 사용하라.

2) 고해성사 부담해소

- ① 고해성사는 ‘의무’가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이라는 사실을 느끼게 해줘라.
- ② 고해성사는 영혼의 병을 치료할 수 있게 해주는 하느님의 선물이다.
- ③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청하는 것만으로도 용서를 받을 수 있다.
- ④ 편안한 마음으로 성사를 볼 수 있도록 해줘라.
- ⑤ 혼인장애 등 본당신부와 상담이 필요한 경우 면담을 주선해줘라.
- ⑥ 성사 보는 날 동행해줘라.

3) 밀린 교무금은 사목자와 상의하라

- ① 밀린 교무금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자존심을 살려 주도록 하라.
- ② 형편대로 교무금을 책정하고 성의껏 납부해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도록 안내하라.
- ③ 교무금 탕감문제는 본당신부와 상의하라.
- ④ 주일 헌금이 없으면 주님께 드리는 편지로 대신하라.
- ⑤ ‘먹고 살기 바빠서’ 라고 하면 특전미사, 새벽미사, 저녁미사를 안내해 줘라.
- ⑥ 생활고에 시달리는 냉담 교우에게는 하느님은 ‘당신의 처지’가 아니라 바로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주지시켜라.

4. 초대, 환영, 사후관리 매뉴얼

1) 초대

- ① 모시는 날은 많은 이들이 참석할 수 있는 요일과 시간으로 정한다.
- ② 냉담 교우에게 초대장을 보낸다. 청첩장을 보내듯이 정성이 깃들어야 한다.
- ③ 초대장은 본당신부의 친필 메시지를 담아 정감있게 꾸민다.
- ④ 초대장은 인도자가 전달하는 것이 좋다.
- ⑤ 본당신부와 면담을 주선해서 고해성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라.

2) 환영

- ① 직접 동행하여 모셔오라.
- ② 냉담 교우 1명에 2명의 인도자를 배정하여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
- ③ 성당 입구에서 허리를 굽혀 인사하라.
- ④ 환영식은 미리 다양한 문화프로그램과 음식을 준비하여 즐거운 분위기 조성하라.
- ⑤ 신자들과 어울리도록 유도하라.
- ⑥ 참회예절과 고해일정을 마련하라. 주임신부의 안수도 좋은 방법이다.
- ⑦ 주임신부의 인사와 성찰의 시간을 통해 지난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한다.

3) 사후관리 - 구역(반)과 연결

- ① 구역(반)에 자연스럽게 적응해 기존 교우들과 친밀한 유대 관계를 맺도록 도와준다.
- ② 1인 1단체 가입 권유, 동아리 모임에 가입을 권유하라.
- ③ 환영이 끝난 후 재복음화를 위한 특강이나 피정을 준비하여 신앙 정체성에 확신을 갖도록 한다.
- ④ 냉담 교우를 위한 생활 교리를 실시하여 교리와 전례를 새롭게 되새기도록 하라.
- ⑤ 교육을 실시할 경우 대부모 또는 해당 구역(반)도 함께 참여하도록 권유하라.
- ⑥ 재복음화에 도움이 되는 영성서적을 선물하거나 정기 간

행물을 증정하는 것도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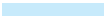
- ⑦ 권유자는 그 냉담교우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

5. 냉담 교우 모시기 5계명

- ① 제1계명 : 냉담 원인에 따라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 ② 제2계명 :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하라.
- ③ 제3계명 : 냉담 방지를 위해서는 충실한 신앙교육과 지속적인 신자 재교육이 필요하다.
- ④ 제4계명 : 냉담 교우와 이웃사촌이 되라.(특히 경제, 질병, 실직 등으로 고통 받는 이들)
- ⑤ 제5계명 : 고해성사를 편안한 마음으로 볼 수 있게 주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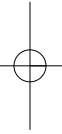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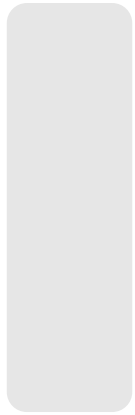
MEMO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20 horizontal dashed lin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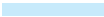
MEMO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20 horizontal dotted lin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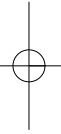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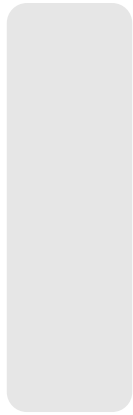
MEMO

Handwriting practice lines consisting of 18 horizontal dashed blue lin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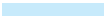
MEMO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20 horizontal dotted lin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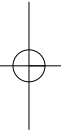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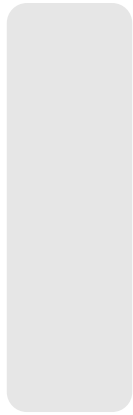
MEMO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20 horizontal dashed lines.



MEMO

Handwriting practice lines consisting of 20 horizontal dotted lines.



냉담 교우 회두 안내서

발 행 일 | 2016년 1월 13일

발 행 처 | 천주교 안동교구 사목국
760-340 안동시 정백이골길 36-15
054)858-3114~5

